

사회의 꽃 - 조선여성들

꽃은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과 광만, 즐거움을 안겨 준다.

조선에는 여성들을 찬양하여 지은 《녀성은 꽃이라네》라는 노래가 있다.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아들딸 영웅으로 키우는 꽃이라네
...

여성들을 생활의 꽃, 가정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드는 것은 조선에서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미덕으로 되고 있다.

오랜 세월 봉건적질곡과 억압속에 한송이 학화마냥 시들어 버리던 조선여성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비로소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조선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의 매 년대기들마다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성들을 중시하고 존대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목적인간, 식물인간이라고 하시며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도록 하시었다.



오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조선여성들은 사회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어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3.8 국제부녀절과 어머니날을 맞는 여성들을 위하여 황홀한 축하무대도 펼쳐주시고 고급화장품을 비롯한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었다.



이렇듯 조선여성들은 위대한 태양의 빛받아래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